

포천교육의 질 향상 돋보인다

동남고 서울대학교 2명 합격 영중중 포천고교 수석합격

포천 관내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이 돋보이는 결과가 나타나 고무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동남고등학교에 따르면 2005 대학입시 수시모집에서 3학년 정희식 학생이 서울대 경영학과에 박도민 학생이 서울대 법학과에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동남고등학교 조대행 교장은 "그 동안 지속적인 심화반 프로그램 운영의 결과"임을 강조하고 "학생들

스스로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환경을 조성한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고 말했다.

영중중학교(교장 김우석)에 따르면 지난 14일 합격자가 발표된 2005학년도 고교입시에서 영중중학교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삼급 학교에 진학했다고 밝혔다.

영중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중 김태민 학생이 수석입학의 영예를 안았고 이일환 학생이 차석, 이지희

6등, 이민경 학생이 8등으로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포천중고 실업계 장보국 학생이 수석합격했고 인문계 입지연 학생이 4등, 동두천외고 영어과에 김민년 학생이 합격하기도 했다.

지난 1970년 개교해 현재 8학년 230명의 학생이 재학중인 영중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은 김우석 교장을 비롯해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가능

했다고 한다. 김우석 교장은 부임 인사말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 불만을 표시하고 등을 돌리는 이유는 시설이 나빠서가 아니라 수업내용이 부실한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특기적성을 발전시켜 대외적으로 자신의 명예와 가문의 우월성과 학교의 명성을 높여 줄 것을 교육하고 했다"고 밝혔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교사 탐구

일동초등학교 연구부장 한영희



독서교육 정착 위해 다양한 노력

"도서 봉사 어머니 활용을 통한 도서관 활성화에 힘썼으며 독서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하였고 학교 도서관 정보화 사업을 완료했으며 독서교육 시범 학교 운영에 공헌했다."

일동초등학교 한영희(35.사진)연구부장을 현 단계에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이다.

한영희 교사는 학생들에게 책 읽는 습관을 길러 준 교사이며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한 교사로 알려져 있다.

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다. 일동초등학교 3학년 1반 담임으로 학생들에게 동화구연식으로 책을 읽어주는 수업을 실시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책을 읽고 난 후 그 느낌을 서로 나누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책 내용에 맞는 역할을 맡겨 역할극도 시도하여 학생들의 느낌을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특히 '못말리는 패션'이라는 책을 읽어준 후에 책 속의 내용처럼 실제 패션쇼를 한 번 실시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같은 시도는 어린이 연구교육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한 교사는 그래서 마음 드는 책을 몇 번 씩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몇 번 씩 읽기 위해서는 그 책을 소장해야 한다. 책을 소장하기 위해서는 도서바자회를 통해 저렴하고 쉽게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한 교사는 포천문화원에서 주최한 문화재 체험 학습에 40명만 보내달라는 요청에 대해 아이들 40명을 고르는데 여간 고통스럽지 않았다고 한다. 일부 학생들에게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때문이다. 포천시가 예산을 들여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를 기대한다.

또 한 교사는 일동초등학교 학생들은 시청과 구청을 구분하지 못한다. 지역에는 면사무소만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천시청과 포천경찰서 등 포천에 있는 관공서 방문학습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동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늘 어려움에 봉착한다. 이같은 문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교사가 추진한 일동초등학교 도서봉사 어머니 활용을 통한 도서관 활성화 교육은 도서봉사 자원어머니 38명을 조직해 1일2명씩 오전 8시50분부

터 오후5시까지 학교일과시간과 맞춰 운영하였으며 2003년도부터 지원된 사서교사를 도와 도서 분류에 맞도록 도서실을 재정비하고 방학기간에 파손된 책의 보수와 사서교사의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다.

또 재량시간을 활용해 수시로 도서관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책들을 구입하고 수업에 활용할 학습지들을 학년별 수준에 맞게 제작하여 비치했고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월말에 독서 우수학생을 선정하여 시상토록 하고 독서행사와 관련된 독후화, 감상문 쓰기, 편지글 등 다양한 작품들을 모아 '일동꿈나무'라는 책자를 발간해 전교생에게 배부하여 학생과 교사 및 학부모들이 독서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갖도록 했다.

특히 2002년부터 학교도서관 정보화 사업을 위한 도서의 바코드 작업과 학생들의 대출증 만들기, 인터넷 검색과 도서검색을 위한 컴퓨터 설치, 편안하게 책을 볼 수 있도록 책상과 의자의 교체, 복사기, 무인도서 반납기 등을 갖춘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예산 400만원과 어머니회 도움 300만원을 받아 사전, 도서류 등의 책 1천200권을 확보하고 각 가정의 책들을 기증받아 7천500여권의 도서를 갖춘 도서실 정보화 사업을 완료하기도 했다.

2003년3월1일부터 2004년2월29까지 포천시지정 독서교육 시범학교 운영과 관련해 일동초등학교 동쪽계단의 벽화그리기와 독서환경 개선관을 조성했으며 그동안 추진해온 다양한 독서활동에 관한 내용보고회를 통해 독서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도 했다.

한영희 교사는 1992년 인천교육대학을 졸업하고 그 해 교직에 입문한 뒤 지난해 3월1일자로 일동초등학교에 부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독서교육을 통해 각자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동화구연식 책 읽어주기 큰 효과 거둬

"공공도서관보다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돼야" 강조

한 교사는 그 래서 마음에 드는 책을 몇 번 씩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몇 번 씩 읽기 위해서는 그 책을 소장해야 한다. 책을 소장하기 위해서는 도서바자회를 통해 저렴하고 쉽게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한 교사는 포천문화원에서 주최한 문화재 체험 학습에 40명만 보내달라는 요청에 대해 아이들 40명을 고르는데 여간 고통스럽지 않았다고 한다. 일부 학생들에게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때문이다. 포천시가 예산을 들여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를 기대한다.

또 한 교사는 일동초등학교 학생들은 시청과 구청을 구분하지 못한다. 지역에는 면사무소만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천시청과 포천경찰서 등 포천에 있는 관공서 방문학습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동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늘 어려움에 봉착한다. 이같은 문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교사가 추진한 일동초등학교 도서봉사 어머니 활용을 통한 도서관 활성화 교육은 도서봉사 자원어머니 38명을 조직해 1일2명씩 오전 8시50분부

터 학교도서관 정보화 사업을 위한 도서의 바코드 작업과 학생들의 대출증 만들기, 인터넷 검색과 도서검색을 위한 컴퓨터 설치, 편안하게 책을 볼 수 있도록 책상과 의자의 교체, 복사기, 무인도서 반납기 등을 갖춘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예산 400만원과 어머니회 도움 300만원을 받아 사전, 도서류 등의 책 1천200권을 확보하고 각 가정의 책들을 기증받아 7천500여권의 도서를 갖춘 도서실 정보화 사업을 완료하기도 했다.

2003년3월1일부터 2004년2월29까지 포천시지정 독서교육 시범학교 운영과 관련해 일동초등학교 동쪽계단의 벽화그리기와 독서환경 개선관을 조성했으며 그동안 추진해온 다양한 독서활동에 관한 내용보고회를 통해 독서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도 했다.

한영희 교사는 1992년 인천교육대학을 졸업하고 그 해 교직에 입문한 뒤 지난해 3월1일자로 일동초등학교에 부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독서교육을 통해 각자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아름다운 가족 16■

집중력을 높이려면?



김영진

포천시청소년상담실장
경북대학 학사지원처장
포천신문 지문위원

후천적 노력에 의해 길러진다 는 집중력 증진을 위해 부모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 자녀의 집중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할 때 우선해야 할 일로는, 첫째 째, 자녀들이 배우려고 하는 지적 호기심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공부=시험=평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동기부터 지적 호기심을 잃는다. 그러나 '공부=생활의 편리함=재미' 라는 생각을 자녀에게 심어줄 수만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두번째로 집중력과 관련하여 부모가 고려할 것이 신체적 조건이다.

신체적 조건이 집중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나고 반문하겠지만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집중력=스태미나=호흡력'이라고 한다. 집중력과 관련된 신체적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녀에게 줄넘기나 수영을 통해 호흡력을 길러 주거나 아니면 캥거루 뿔뿔기를 시켜보는 것도 효과적이다. 캥거루 뿔뿔기는 높이가 90cm 정도되는 의자를 놓고 3분 동안 계속 올라갔다 내려가는 왕복 운동을 한다. 그리고 맥박을 측정해서 뿔뿔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데 일

만나 시간이 걸리는가를 알아보는 방법이다. 이것을 반복 측정해서 그 시간이 짧아질수록 호흡력이 향상되었다고 보면 된다. 처음에는 숨을 내기 쉽지만 반복해서 움직이면 매우 효과적이다.

세번째는 심리적 조건이다. 만일 지금까지 학습관련 경험을 통해서 긍정적인 결과보다는 실패 경험을 많이 했다면 학습에 대한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아이들은, '나는 본래 공부를 못해', '지금까지 공부를 잘 해본 적도 없고, 열심히 해본 적도 없어', '공부해 봤자 또 안될텐데, 뭐 때문에 공부를 해' 라는 사고가 팽배되어 집중하지 못한다. 공부에 대한 강한 압박과 이것으로 인해 야기되는 부담감은 집중력을 저해한다. 화장실에 있는 과학 관련 서적을 읽을 때는 매우 흥미 있게 읽다가도 책상 위에 있는 과학 교과서에는 쉽게 싫증을 느끼는 게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이럴 때 부모는 자녀들이 하고 있는 과제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어떤 과제를 하고 싶어하는데 어떤 과제를 하기 싫어하는지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어려워하는 이유를 하나하나 점검해야 한다.

네번째는 자녀가 공부하는 방식의 물리적 조건이다.

집중력은 환경 구성에서 크게 좌우된다. 공부하는 자녀의 방이 형형색색의 완구와 놀이감으로 차 있거나 옷들이 진열돼 있으면 공부에 몰두가 어렵다. 특히 책상 위에 만화책, 디스켓 등 여러 가지 물건이 복잡하게 널브러져 있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또 부모가 스쳐 지나가기 쉬운 것이 바로 책상의 배치와 구조이다. 요즘 인체구조에 맞는 책상, 걸상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것에 의지해서도 안된다. '공부하는 아이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지', '공부할 가정 분

위가 조성돼 있는지' 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 보통의 사람에게는 왼쪽이 막혀 있는 것보다 오른쪽이 막혀 있는 것을 못 견뎌 하는 습성이 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책상 왼쪽에 서기가 있도록 책상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좋다.

다섯번째는 학습전략이다. 학습전략이란 자녀들이 공부하기 전에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마친 후에는 다시 평가해 보는 것을 말한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책 상에 앉아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머리 속으로 정리해 본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부터 수학 공부를 해야지 지금이 4시니까 5시까지 수학교과서 34쪽에서 38쪽까지 풀어야지. 음, 푸는 동안에 쉬는 것부터 풀고 다음에 어려운 것을 푸는데 어렵더라도 참고 열심히 해야지. 난 잘 할 수 있어' 공부를 마친 후에는, '내가 오늘 공부한 내용이 뭐였지? 처음 계획한 대로는 다 못했지만 그런 대로 잘한 것 같아. 내일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앞의 마음가짐은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두뇌를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아이가 밖에서 축구를 하다가 들어오자마자 책상에 앉아서 수학 문제를 풀다면 문제가 잘 풀릴 리 없다. 같은 경우로 텔레비전을 끄자마자 책상에 앉는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다. 행동에서 행동으로 전환될 때 기본적으로 우리의 두뇌는 행동 전 환의 준비 시간이 필요로 한다. 어떤 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리한다는 것은 집중력을 높이는 데 적절하게 도움이 된다. 이 부분과 관련한 부모의 많은 질문 가운데 하나를 보도록 하자.

'아이가 휴식 시간에 텔레비전

을 보겠다고 해서 텔레비전을 보고 공부 하라고 했더니, 다 보고 나서 방에 들어가더니 글씨, 풀고 있지 뭐에요. 그 꼴을 보니까 속에서 불이 나는 거 있죠. 왜 그럴까요? 쉬었으니까 공부가 잘 되어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일까? 바로 텔레비전 시청이 휴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지나쳤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시청할 때는 가볍게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사실 책을 1시간 집중해서 보는 것이나 텔레비전을 1시간 열심히 보는 것이나 같은 양의 피로를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책상 앞에 앉아서 조는 것은 당연하다. 부모가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TV시청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

집중력이 부족한 자녀일수록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쉽게 포기하고 잡념에 빠지기 쉽다. 이럴 때는 부모가 자녀를 야단치거나 혼계하기보다는 무엇을 모르는지 함께 확인하고 해결하려 노력해야 한다. 공부하다가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과목을 바꿔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자신이 흥미 있어 하는 과목을 먼저 공부하고 다시 어려운 과목으로 돌아가게 해본다. 지금까지 노력한 하면 집중력이 좋아진다고 생각했던 부모는 이상의 조건들이 어떻게 극복 되어야 집중력이 높아지는지, 그 과정을 확인하였을 것이다.

집중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우리 아이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렇게 해봐!' 라는 식으로 명령만 할 게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부모도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하려고 노력했는지를 자녀에게 알려준다면 유익한 대화의 장까지 마련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운동성의 미국어 따라하기

78. 지금 나갈까?
Shall we go now?
살우이고나우?
* 그럼, 가지구요.
Yes, let's get going.
예스, 렛스겟고잉

79. 해스트 핫 썸 먹자구요.
Let's get some fast food.
렛스겟썸해스트훗
* 그래요, 샌드위치 먹자구요
O.K, let's get some sandwich.
오케이, 렛스겟썸 샌드위치



*문의:윤종성
(017-723-4977)colyoon@nat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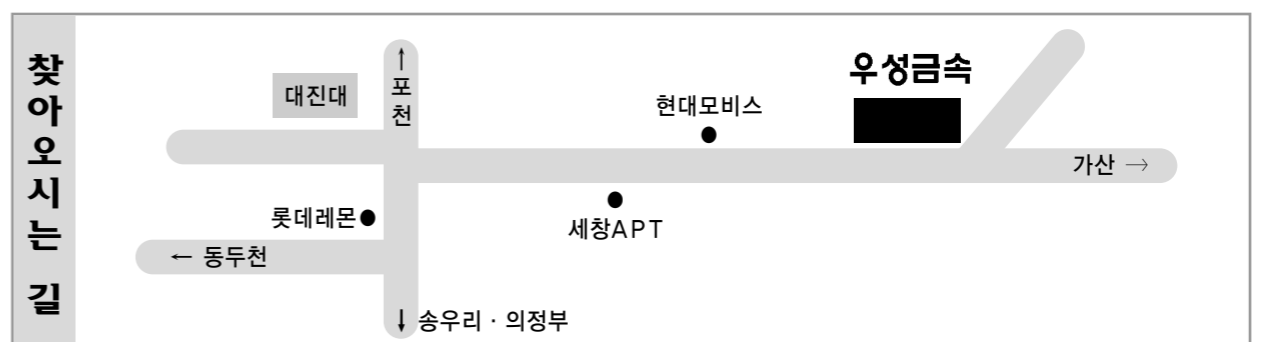
고철·비철 등 각종 산업용 금속제품 재활용 전문업체 “우성금속 자원”

▶ 알루미늄·황동·청동·스텐·공장철거 전문 ◀



“우성금속은 축적된 노하우와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재활용 가능한 각종 비철·고철 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첨단장비를 이용해 공장철거등에 고객이 만족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철거
상담환영
고철
고가매입



본사 : 포천시 선단동 64

Tel : 031)541-5500

011)351-8742

대표 이춘식